

특별기고



정기연 주필

# 시간과 돈을 벌고 사람을 벌고

벌고 번다는 것은 인간이 움직이고 노력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이 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하느님께서 똑같이 주어졌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처럼 자동 소모가 된다. 생산된 전기는 일하고 소모돼야 하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도 어떤 일을 하고 소모돼야 한다.

돈은 가치의 척도이면서 저장의 수단이기도 하다. 인간은 시간과 노동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들인다. 돈을 많이 벌어들인 사람을 부자라고 한다. 부자가 되려면 시간을 아껴 쓰고 일을 해 대가성 있는 것으로 바꾸면서 소모해야 한다. 하루란 시간에 어떤 일을 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가 남을 것이지만 일을 않고 보냈다면 낭비의 시간이 된 것이다. 아까운 시간 아까운 돈은 잘못 사용했을 때 하는 말이다.

시간이란 하루의 시간 일주일의 시간 한 달의 시간 일 년의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하루 동안 일하려면 시간을 번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잘 세워 두 시간에 할 일을 한 시간에 했다면 한 시간을 번 것이다. 인간은 집 밖에 나가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는데 일해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만남을 통해 사람을 버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가게를 차려놓고 오는 손님에게 물건을 팔고 돈을 버는 장사꾼이

있는가 하면 오는 손님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다. 몇 년이 지나면 돈을 번 가게는 손님들이 줄어들지만, 사람을 번 가게는 단골손님이 생겨 번창하게 된다.

사람을 번다는 것은 나와 관계가 있는 이웃의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말한다. 시간과 노동을 투자해 돈을 벌지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벌어들이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이다. 사람을 번다는 것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 만남이 없으면 사람을 벌 수 없다.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 있다. 만나는 사람들은 많지만 내 사람이 없음을 뜻한다. 컴퍼스로 중심을 여러 개 그려 중심은 나라고 보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기록해 보면 혈연관계로 가까운 사람, 지연 관계로 가까운 사람, 학연 관계로 가까운 사람, 직장과 직업 관계로 가까운 사람, 사회적 만남으로 가까운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나와 그 사람들은 서로 알고는 있지만, 진정한 내 사람은 아니다.

가까운 친구 만들기 원리에서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친구가 돼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노력하면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인간관계도 내가 먼저 상대를 만나서 도움 주는 일을 하고 있어야 가까워지며 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젊어서는 돈

을 버는 데 주력해야 하지만, 노년에는 사람을 버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사람을 버는 것은 만남으로부터 시작하므로 날마다 일과가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실천하는 것이다. 심적으로 가까이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다. 일가친척이 많지만, 만남이 없으면 남처럼 멀어지나 비록 남이지만 날마다 자주 만남이 있으면 사촌처럼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진심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며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사람을 버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 인생의 노년에 할 일이다.

사람을 버는 원리는 만남에서 이루어지며 무엇인가 주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어떤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며 직접 만남과 통신 매체를 통한 간접 만남이 있어야 한다. 성공한 인생의 노년은 젊어서 시간 투자를 잘해 벌어들인 돈과 재산이 많아야 하며 나와 만남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 진정한 내 사람이 되도록 사람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해 '군중 속의 고독' 같은 불행이 아니라 인맥의 풍요 속에서 사는 노년이 돼야 한다. 행복한 인생은 돈과 재산보다도 진정한 내 사람을 많이 벌어들여서 노년을 풍요롭게 살다 가는 것이다.

독자기고

##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신고제' 알고 있나요

김유남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최근 공사 현장 내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대형 인명·재산피해를 가져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용접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서에서는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 신고제란 용접 등 중요공사(용접, 용단, 스파크, 그라인딩 등) 3일 전에 소방서에 공사계획서를 제출하면 소방서에서는 소방차량 순찰, 안전컨설팅 등을 실시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필요시 소방 인력도 배치해 대형화재를 예방하는 것이다.

사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화재 등 재난 발생할 경우 소방기본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성소방서 최근 3년간(2020~2022년) 공장 화재 통계를 살펴보면 8건이 발생했고, 재산피해는 3억 7천이나 발생했다. 이러한 화재의 원인을 분석한 바, 공사장 관계자 등의 화기 취급 현장 감독 소홀, 작업현장에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가연물질 제거 조치 미 이행 등 부주의가 5건(62.5%)을 차지했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작은 관

심만 있어도 예방이 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화재 예방 안전수칙 지킨다면 만약의 상황에 대형피해를 막을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작업자는 용접·용단작업 전에 건축물 안전관리자에게 작업장소를 사전 신고(공지)해야 한다. 이후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고 현장 위험성을 직접 확인한 후 물통, 불꽃받이 등을 비치해 사전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공사현장에서는 소화기 및 간이소화장치 등 면적별 해당하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두 번째로, 가연성·폭발성·유독가스 발생, 산소부족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작업 중 발생한 유독가스로 작업자의 질식사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가연성 또는 폭발성 가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용접 중 남은 불씨가 화재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작업 후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해야 한다.

작업장에서 모든 관계인이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 더불어 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신고제 활용으로 대형화재를 예방하자.



### 수사일보

http://www.susailbo.com

62033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56번길, 7 101-403

회장	황일봉	대표전화	(062)-373-6448	FAX	(062)227-0084
사장	이문수	광고	(062)-373-6448	구독료	월 10,000원
발행·편집인	이기영	등록번호	광주 가69(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부사장	기백관				
취재본부장	서용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사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zkj0000@naver.com 전화 062-373-6448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린피브로알로에

GREENFIBROOMEYE  
**그린피브로디엠아이**

지친 현대인의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에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 건강기능식품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을 위한 건강 프로젝트!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